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개최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상생의 세계를 위해 마음의 문 열자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18일 한일 양국의 불교도가 모인 가운데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열렸다. 교류협회 회장 지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첫날 '불투명한 미래를 극복하고, 불제자로서 부처님 오신 뜻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최우선 가르침으로 삼자. 서로가 의지하며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상생의 세계를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양국 간 공동체 의식을 최우선 가치로 뒤야 한다'며 "차별과 오해를 걷어내고 진실하게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양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인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사찰음식을 통해 세계인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 교류협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스님은 "최근 한일 양국 간의 역사관으로 종종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1400년 전 백제 성명왕 때 불교가 전해지면서 문화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근세 전쟁으로 한국에 고난을 준 사실은 유감스럽기 그지없으며, 깊이 반성하게 된다. 정치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불교는 연기공생의 이념 아래 양국 간 연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평화기원대법회는 한일 양측 회장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음종 총무원

장 흥파스님의 상축의식,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스님의 축사와 전 일본불교회 회장 한 다코준(山田孝準)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의 축사로 이어졌다.

법회에 이어 오후에는 '전통불교의 보존과 계승'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직지사 주지 흥선스님과 오자와켄주(小澤憲珠) 일본 대정대 명예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흥선스님은 세미나에서 "조선시대 추락했던 불교의 위상은 한국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불교가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과거의 종교' '잊혀진 문화'로 기억되기에 이르렀다"고 불교의 역사를 돌아보고 "대승불교의 수행관과 가치로 무장해 현장에서 자신의 일터를 수행처로 삼아 불교 가치를 실현하는 수행자들이 늘어날 때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는 남북 간 무력에 의한 침략을 부정하는 동시에 근본적 불교 정신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 한일 간 갈등국면 타파를 위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 학술 문화 민간교류 분야에서 중년·사찰 간에 교류를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일 양측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광수사, 동학사, 개태사 순례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 예방을 끝으로 회향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02-720-1708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독일서 한국전통문화 우수성 과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스님)은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독일 베를린에서 '2013 베를린 한국사찰음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독일 수교 130주년과 광부 및 간호사 파독 50주년'을 맞이해 베를린시 정부가 초청한 것이다. 문화사업단은 이 기간 동안 사찰음식뿐 아니라 연등축제, 템플스테이 등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하여 현지에서 많은 호응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일정 첫날인 25일에는 베를린시에 있는 세계의 정원에서 연등축제를 거행했다. 연등회가 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기획된 행사로, 행사가 열린 서울정원에는 300여 개의 팔모둥이 내걸리고, 연등 만들기과 한글 이름 써주기 등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사찰음식 시식회도 함께 열려 현지인으로부터 호평받았다. 특히 이날은 태풍경보가 내려져 장대비가 쏟아지는 악천후에도 5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독일 학생들과의 교류도 이뤄졌다. 문화사업단은 27일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를 방문해 교수진과 학생 70여 명에게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스님의 강연과 시식회를 열었다. 문화사업

단은 이를 계기로 하반기부터 매년 한국을 찾는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 참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 행사인 '한국사찰음식의 날' 공식 만찬은 28일 열렸다. 베를린 리츠칼튼 호텔에서 문을 연 만찬은 올해 파독 5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 이 자리에는 파독광부협회와 한독간호협회, 베를린 한인회 등 한인 동포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들은 고국에서 온 사업단을 환영하고, 전통문화를 알 기회를 준 것에 감사했다. 31일에는 재독한국문화원에서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 사진전, 다도 시연과 시음 등이 펼쳐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문화사업단장 정산스님은 "이번 행사는 한-독 친선 증진과 한국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며 "50년 전 가난한 조국을 위해 독일로 떠났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노고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독일에 널리 알림으로써 재독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02-2031-2000



단장 정산스님 등 관계자들이 '한국사찰음식의 날' 및 '파독 50주년 기념 만찬' 후 파독 광부·간호사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부산 홍법사, 인류 평화를 위해 참전한 용사와 가족 초청

한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하루 되자 발원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제23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가 6월 6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스님) 잔디마당에서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0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인 2013년 허공마지홍법바라밀제에는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한국전쟁 참전 용사와 가족 12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낮선 한국사찰에서 귀에 익은 국가가 흘러나오자 미국인 참전용사 존볼크(86세)씨는 허공을 응시하며 애써 눈물을 삼켰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15연대에서 목숨을 걸고 참전한 존볼크씨는 61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듯 시종일관 숙연한 표정이었다.

이날 홍법사에는 존볼크씨 외에 그와 나란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니엘씨, 1954년까지 특공대에서 우리나라 유격대원들과 훈련한 조셉존슨씨와 제임캠블씨 등 4명의



유엔 참전용사들이 찾아왔다. 부인과 자녀들도 함께 왔고, 병석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과 외손자 등 12명이 동행했다.

이날 홍법사에 모인 사부대중 5000여 명은 백발이 성성한 참전용사들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아픔과 자유의 소중함을 실감했다. 특히 참전용사들이 부산 동명대 학군단 학생들과 전쟁포로와 행방불명된 용사들을 위해 준비한 '추모예식'을 지켜볼 때는

▼ (좌)교육관 앞에서 참전 용사와 가족들과 함께한 기념사진 (우)태극기를 중앙으로 16개 참전국의 국기 게양 및 법회모습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이어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예정에 없이 참전용사들에게 1000만 원을 전하고 법문을 설했다. 홍법사에서도 올해 홍법대상 수상자를 참전용사 4명으로 선정하여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은 "한국불교는 호국불교를 지향하는데, 이번 참전용사의 초청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종전을 발원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라며 "고령의

나이지만 평화를 사랑하고 분단 한국의 통일을 누구보다 염원하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자"고 말했다.

참전용사 일행도 한국의 스님들과 불교계에 감사의 인사로 감사패와 깃발 등을 전했다. 이날 2,000여 명의 어린이·청소년들은 '호국의 숨결대회' 백일장을 열기도 했다.

홍법사 051-508-0345

www.busanbuddhism.com

익산 송림사, 유학 온 학생들에게 불교문화 체험



익산 송림사(주지 지광스님)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원광대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45명을 초청하여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고향을 떠나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이방인으로서 외롭고 불편한 일이 많을 것이므로, 이를 위로하고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아프리카 가봉과 케냐, 중국,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을 찾은 유학생들은 수련복을 입고 사찰에서의 어색한 첫 만남을 가졌다. 입재식에서 주지스님은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한국불교 문화체험을 환영한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국가 간 우호 증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전통사찰 건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타종교식 체험, 108배 참회, 경기 명상, 참선 수행과 발우공양 등 사찰에서의 의식을 함께했다.

주지 스님이 내리준 '나는 누구인가?' 화두를 붙들고 한 참선수행과 발우공양이 학생들이 손꼽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한국에 유학 온 지 2년 6개월이 됐다는 아프리카 가봉 출신 기술라인 씨는 "108배를 하여 팔다리가 아프지만, 마음이 매우 상쾌하다"라며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불



교문화를 접할 수 있어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 노효정 씨는 "불교문화체험을 하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다. 발우공양은 매우 엄숙하고 생태지향적인 식사법 같다"고 말했다.

송림사 '방하학' 템플스테이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하여 참가한 인원은 3,000여 명에 이르고, 외국인만 20개국 600여 명에 이른다. 사찰체험과 발우공양, 108배, 참선, 돌레길 탐방, 다도, 스님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는 입소문을 듣고 온 각계각층의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 가운데는 타 종교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도 포함되어 있다.

주지 지광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특히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와 포용, 상생을 위한 사업에 주력해 지역사회와 불교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림사는 지난 1일 사찰음식체험관인 향적당을 완공했다. 지상 2층 구조로 지어진 향적당은 1층에 식당과 음식체험관, 2층에는 다도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다용도실로 꾸며졌다.

송림사 063-862-6394

www.sunglimsa.com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편찬위원회, 경허집 등 불교문헌 영어로 번역 예정

경허스님의 <경허집>, 용성스님의 <각해일륜> 등이 영어로 번역된다.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가 6월 12일 첫 회의를 열고 1900년부터 1948년 사이에 출판된 불교문헌 가운데 인물별 영역별 대표성을 띤 10종을 선정해 영역하기로 결정했다. 용성, 한암스님 등 근대 대표적인 불교저자들을 국외에 알릴 수 있게 영어로 번역해 책으로 만든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28일 '근대한국불교대표문헌 영역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고, 근대한국불교 문헌을 선별해 영역 작업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적 고승들의 저술을 집대성한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본을 발간한 종단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근대 저작도 함께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됐다. 국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교육원과 동국대불교학술원이 연계해 진행된다.

편찬위원회는△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의 영역 △번역 대상문헌 조사 △번역문헌의 출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편찬위원회는 총무원장 직속기관이며, 교육원 불학연구소장과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장이 포함되는 기획편집위원회를 별도로 뒤 영역 대상문헌 조사, 번역대본 확정 및 문헌 해설, 번역 편집 매뉴얼 수립 등을 진행한다.

영문 번역할 책은 <경허집> <각해일륜> 외에도 이능화의 <백교회통>, 김영수의 <조선불교사고>, 석전스님의 <인명

입정리론회석>, 권상로·만해스님 등이 저술한 <한국불교개혁신론>, 최남선의 <불자필람>, 고유섭의 <조선탑파의 연구>와 <근대불교시선> <근대불교논설집> 등 10권이다. 영역편찬위원회는 "10종의 책은 한국불교의 근대적 전환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헌들로, 근대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불교사상 및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에는 이 가운데 4종에 대해 우선 한글대본 작업을 하고 2종의 책을 시범적으로 영문 번역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편찬위원 위촉식도 진행됐다. 동국대 학술원장 현각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직무대행 미산스님, 교육원 교육부장 법인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주경스님, 불학연구소장 혜명스님,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이 편찬위원으로 위촉됐다.

▼ 경허스님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큰스님, 사따마 조디까다자(Saddhamma Jotikadhaja) 작위 수훈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얀마 최고 작위를 수훈했다. 미얀마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가 추대하고 미얀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2013년 사따마 조디까다자(Saddhamma Jotikadhaja)' 작위 수훈식이 6월 7일 주한 미얀마대사관에서 거행됐다.

폐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을 대신해 작위를 대리 수여한 우 님 흘라잉 주한 미얀마 대사는 "미얀마 국민을 위해 헌신한 월주스님과 지구촌공생회에 감사드린다"며 "지구촌공생회의 활동은 한국과 미얀마 간의 민간협력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월주스님은 "미얀마에서의 미약한 개발 원조활동에도 '사따마 조디까다자'라는 영광된 작위를 선사해 주신 미얀마 국민 여러분과 폐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및 종교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구촌공생회는 미얀마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므로써 자조와 협력을 통해 주민 모두

가 공생할 수 있도록 자립의지를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하여 왔다"고 말했다.

사따마 조디까다자(Saddhamma Jotikadhaja) 작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하는 분이라는 뜻의 팔리어로 미얀마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가 수여하는 작위 중 가장 높은 작위로 알려졌으며, 매년 사회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양 국가는 1963년 미얀마·한국친선협회(Myanmar-Korea Friendship Association)를 설립하여 우호와 친선을 도모하기 시작, 이후 한국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원조와 봉사활동으로 민간교류가 이어졌다. 이번 월주스님의 사따마 조디까다자(Saddhamma Jotikadhaja) 작위 수훈식으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미얀마와 한국의 민간교류와 협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촌공생회 미얀마 지부는 지난 2008

년 나르기스 태풍 이후, 재난 복구를 위해 이리외디 삼각주 지역 주민에게 쌀을 지원하면서 설립됐다. 이후 미얀마 지부 교육 지원, 식수지원 사업에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미얀마 주민을 위해 8개의 학교와 11기의 물탱크를 건립했다.

끝으로 월주스님은 "오늘 사따마 조디까다자 작위 수훈은 지구촌공생회 1만여 후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의 지구촌공생회 활동에 대한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세계일화(世界一花)'의 구현을 위하여 빈곤국가에 대한 지원과 주민의 자립 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빈곤 국가 주민과 1만여 명의 고마운 후원자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쓰고 있는 활동가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결의를 다졌다.

수훈식에는 사무처장 화평스님,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스님, 지구촌공생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구촌공생회 후원문의 02-3409-0303

(사진) ① 주한국 미얀마 대사가 월주스님께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② 왼쪽부터 상목스님, 덕림스님, 화평스님, 월주스님, 주한국 미얀마 대사, 부대사, 이등서기관

천호희망재단, 라오스서 학교 보수 협약 체결

조계종 원로의원 월서스님(천호희망재단 이사장)이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돌아왔다.

월서스님은 지난해 50여 년 동안 짊어졌던 종단의 중책을 모두 내려놓고 천호희망재단을 설립해 제3세계 주민을 위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호희망재단은 라오스 오지마을을 학교보수 및 장학금 후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활동 무대를 라오스로 넓혔다. 또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해 교과서를 나눠주고 빈민촌을 방문해 쌀을 후원했다.

월서스님은 5월 25일 첫 일정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시 웁트 사원에서 풍 사마르 종정스님을 만났다. 풍 사마르 종정스님은 라오스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고 있다. 평균 수명이 55세 전후인 라오스에서 세납이 무려 98세임에도 정정했다. 이날 월서스님은 풍 사마르 종정스님과 오지마을을 학교 개보수 및 장학금 지급 협약을 체결했다.

스님은 이번 라오스 방문 기간 열악한 교육 환경을 목격하고 힘닿는 데까지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라오스 종정과 종교국 행정 책임자를 만나 여러 가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스님들을 위해 컴퓨터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라오스 종교국과 종정스님이 대학생과 스님 등 총 20명을 선정하면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29일에는 캄보디아 오드르민찌 이주의 오지마을 안롱 벵 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 교과서 3000여 권과 학용품을 전달했다. 같은 날 스님은 씨엠펙에 있는 빈민촌 시오르 크렘 마을에 쌀 1톤을 전달했다.

"라오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스님들의 여의치 않은 수행환경이었다. 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 우선 넓은 학교들을 개보수하는

것이 시급했다. 지붕이 낡아 비가 오면 내부가 아수라장이 되고 화장실이 제대로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기존학교 가운데 지붕에 물이 새는 등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의 몇 곳을 선정해 개보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스님은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캄보디아 오지마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왕복 10시간이 넘는 길도 마다치 않았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피로가 말끔히 풀렸다고 말했다. 앞서 스님은 네팔 오지인 히말라야에 있는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갔다가 차가 고장이 나 24시간 동안 산악에 갇히기도 했지만, 지원을 포기하지 않았다.

월서스님은 캄보디아 씨엠펙의 한 마을에 쌀 1톤을 지원하고 돌아오는 길에 뼈가 앙상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정말 가엾은 그들을 이대로 두어야 하나?' 하는 절망감이 깊게 몰려왔다고 한다.

"오지마을의 교육환경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했다. 어린 시절과 겹쳐졌다. 천호희망재단이 배포한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월서스님은 인재양성은 곧 국가 미래가 달린 것이니만큼 100년을 내다보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칠 거라고 말했다. 특히 캄보디아는 인구의 40%가 14세 미만의 아이들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스님은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뿐이라고 확신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국제구호 활동을 죽을 때까지 꾸준히 해나갈 것"이라며 "평생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왔으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보시행으로 회향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출처 불교신문 천호희망재단 02-919-0211

제 7회 자우스님의 영어 담마 캠프

몇 친 하이 되기

영어담마캠프

5박 6일

책임감 있는 아이

부지런한 아이

행복한 아이

Program

처음해 보는 새벽명상
원어인 선생님과 영어게임
매일 5시간 영어수업

달라진 우리 아이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자우스님과 떠나는 멋진 여행!

연제 2013. 8. 8 ~ 13(5박6일)까지 인원 선착순 70명
 어디로 제10교구본사 팔공산 은해사 누구 9세 ~ 15세
 나눔비 37만원 (일체포함) 우리은행 1006-401-277347 예금주 비로자나국제선원
 활동 새벽명상, 영어이야기, 영어게임, 국제매너, 계곡에서 물놀이 등
 문의 02) 6012-1731

대안불교계중 비로자나국제선원 http://cafe.daum.net/cosmicbuddha

[일감스님 미국 기행문] 스님, 청안하십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꽃은 아름다웠다. 뉴욕의 여기저기에는 얼른 보면 빛이 바랜듯한 연분홍빛 목련이 이국땅 낮은 나그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

유니언 신학대학에서 열린 불교와 기독교 콘퍼런스 취재차 미국을 다녀왔다. 빼듯한 행사일정 틈새를 비집고 말로만 들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링컨센터,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을 돌아보았다. 특히 밤에 본 브로드웨이는 화려하였다. 여러 생각이 있었다. 첨단 광고방식을 구경해서 좋았지만, '전기, 참! 많이 소모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민하고 있던 터라 전기 걱정부터 하였던가 보다.

광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광고에 나온 물건들을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업 광고를 하는 중간에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인종과 다양한 사상이 있지만, 똑같은 불성(佛性)을 갖춘 존재들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광고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광고도 함께 말이다.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나의 바람이고....

미동부특별교구장 휘광스님이 계시는 불광선원과 원각사를 참배하였다. 교구

장 스님은 최초의 해외교구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다. 교구 중무를 함께 담당하실 국장스님들과 장단기 계획을 준비하시면서 종단이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당부하셨다. 더불어 미주교구가 한국불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낮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셨다.

짧은 만남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원각사로 향했다. 원각사에는 또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넓은 부지의 중심에 부처님 사리탑과 원각사를 창건하셨던 법안스님의 부도가 있었다. 법안스님은 미주 한국불교의 큰 어른이었다 한다. 하지만 원각사 대작불사의 꿈은 후학들에게 남겨 놓으셨다. 이제 통도사 정우스님과 원각사 주지 지광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힘을 합하여 원력을 함께하고, 기도해서, 큰 불사를 이뤄 낼 것이라고 믿는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불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시내 중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장점도 있을 것이다. 특히, 넓은 호수를 잘 활용하면 번뇌를 내려놓고 걷기 명상을 하거나,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좌선(坐禪)수행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한국불교를 미국에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한국불교를 대표할 만한 한국식 사찰이 있는 것



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거기다가 중국불교나 일본불교와는 다른 한국불교만의 특징 있는 가르침을 편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일 것이다.

한국에서도 조심스럽고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가 한국불교는 한국불교인가? 라는 주제이다. 큰 스님들이나 학자들도 논문이나 법문을 하실 때, 대부분 중국선사의 얘기나 기록물을 인용한다는 것이다.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 지눌스님, 근세의 성철스님 또는 그 외 큰스님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어록이나 행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잘 모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한국불교를 얘기하면서도 중국선사들의 얘기를 하게 된다. 외국인의 눈에는 이런 일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다. 외국인을 이해시킬 일이 아니

다.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 단추를 잘 맞게 꿰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전통과 미래를 잘 접목한 한국식의 법당을 건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거기다가 한국불교 사상을 정립하는 일은 더 없이 중요하다. 해외교구 설립을 계기로, 해외에 나가 계시는 한국 스님들께서, 한국불교의 특징을 멋지게 펼칠 수 있도록, 해외교구와 종단이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

스님! 한국에서는 여름 결재가 한창입니다. 장마철인데도 비가 많지 않고 무척 덥습니다.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평소에도 고맙습니다만, 저번에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청안(淸安)하시길 바랍니다.

글_ 불교신문 주간 일감스님

뉴저지 보리사, 불우이웃돕기 자선 바자회 성황

뉴저지 보리사(회장 원영스님·주지 원충스님)는 6월 15~16일 양일간 보리사 앞마당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선바자회를 개최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다짐했다.

바자회는 신도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선물한 옷가지, 전자제품, 액세서리, 장난감, 책, CD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였고,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불교용품들 지역주민과 바자회를 찾아온 신도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주변의 타 인종 주민에게는 따뜻한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화창한 날씨 속에 펼쳐진 바자회에 지나가던 주민은 호기심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전시된 물품을 구경하며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는 등 불교와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지나가던 한 주민은 "펼쳐진 물품을 둘러보며 액세서리와 옷가지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 물건이 저렴하고 다양해 무엇을 먼저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우연히 앞을 지나다가 보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지역 일간지에도 소식을 실어 한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성철 큰스님의 문도 사찰인 보리사는 주



변의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나누고 타 인종에게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바자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바자회를 통해 모여진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 보리사는 한인사찰 최초로 지난 3월17일 포트리에 보리문화원(The Bori Cultural Center)을 개원해 참선과 요가, 불교교리, 생활영어 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법회로는 6월16일부터 매주 일요법회와 함께 합동 49재를 올리고 있다.

2002년 12월 뉴욕 업스테이트 Ellenville에서 원영스님에 의해 창건된 보리사는 스토니포인트를 거쳐 2005년 5월 뉴저지 티넥으로 이전했다. 원충스님이 지난해 11월 새 주지로 부임함에 따라 원영스님은 회주스님이 됐다.

뉴저지 보리사 +1-203-833-0633

남가주사원연합회, 효도관광 실시

남가주 사원연합회(회장 묘경스님·고려사주지)는 6월 13일 팜스프링 온천장으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노거사님과 노 보살님들이 참가했다. 오전 8시 30분 달마사에 집결하여 1호차는 곧바로 목적지인 온천장으로 향했고, 2호차는 가든 글로브에 정차하여 오렌지 카운티 불자들을 탑승시켰다.

이날 효도관광 참석자들은 버스 안에서 사시 예불시간에 맞춰 천수경, 정근, 축원, 반야심경, 화엄성중 정근을 했고, 점심공양 후에는 자유롭게 온천욕을 즐겼다. 이날 유남식 포교사단장은 노래방 기기를 준비하여 노래자랑과 춤 경연을 열어 어르신들

의 여흥을 돋궈주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사원연합회장을 맡은 젊은 스님이 연세 많은 불자와 함께하는 모습이 흐뭇하다며, 이 행사가 효를 중시하는 한국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가주사원연합회장 묘경스님을 비롯하여 환경권 사무장, 문월봉 총무 그리고 육바라밀 봉사단이 함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회장 묘경스님은 "자리를 빛내주신 각 사찰의 신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알찬 행사를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글_ 고려사 묘경스님



이탈리아 불자, 한국 간화선에 매료되다

6월 21일 한국불교국제네트워크 임원실에서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온 안드레아 파치니, 고려인 4세 오 발렌틴, 우즈베키스탄 자은사 주지 조주스님 등이 이탈리아에서의 한국불교 현황에 대해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에 대해 많은 애정을 간직하고 있는 안드레아 파치니 씨는 이날 오후에 이탈리아로 돌아갔다.

이탈리아는 가톨릭 국가인데 어떻게 불교를 믿게 되었나?

자신은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찾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크리스천 국가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성장 과정과 문화적 배경에는 크리스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종교지도자들을 아주 존경한다. 그러나 가장 큰 의문점인 '왜 태어나고 늙고 죽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지 못했다. 불교를 알게 되었을 때 처음부터 전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 15년 동안 차츰차츰 불교에 대한 이해를 더해감으로써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종교적 갈등이 심했다. 15년이 지난 후부터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교라는 것을 발견해 나갔다. 차츰 나는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내 영혼에 불교를 불어넣게 되고 흥미를 갖게 되었을 때 선불교를 알게 되었다.

중국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변형시켰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의 선불교는 예전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송광사 구산스님의 선서를 읽었을 때, 청하스님의 법어를 읽었을 때, 가장 큰 밝으므로 다 나왔다. 그리고 나는 아주 훌륭하신 은사

스님을 만난 것이 큰 행운인데, 그분이 상월 보선스님(현 대흥사 회주, 전 종회의장)이다. 그분이 이탈리아에 오셔서 설법하신 모임에 참가한 것은 큰 영광이었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친절함과 친밀함 등이 솟아났다.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보선스님을 가까이에서 모셨을 때, 그분에게서 풍겨 나오는 법의 향기가 느껴졌고, 그분은 항상 삼매에 드신 것 같았다.

또 한 분은 나의 불교공부를 도와주시는 조주스님이다. 모든 존재에 대해 진정한 자비심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셨다. 훌륭한 스님으로부터의 가르침 때문에 이제 내가 마주치는 세상은 자비로 가득 찬 듯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불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접하면 접할수록 더 유익하게 다가가 핵심적인 문제에 답을 준다.

한 예로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일반 사람(신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신을 보라고 한다. 하지만 소외감, 불신, 갈등 구조 등으로 마음의 평정을 얻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현재 이탈리아에서의 불교는?

매일 성장하는 추세로 많은 이탈리아사람이 불교와 가까워지고 있고, 배움에 대한 갈망이 강하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티베트불교가 선불교보다 더 흥미롭게 느껴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선불교에 대해 오해가 많다. 사견인데 많은 유럽인에게 지적이고 문화적인 면에서 인

위적이고 가공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계종과 협력하여 선불교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탈리아에 대혜스님과 대리스님 두 분이 있다. 대혜스님은 핀란드 출신으로 송광사 일각스님의 상좌이다. 문화에 대해 최상의 성숙도를 갖고 있고, 테라바다 수행도 한 스님으로 무상암이라는 절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를 포교하고 있다.

대리스님도 베네치아 빠도바 선센터에 계시며, 지적성숙도도 높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다. 하지만 한국의 가사나 장삼이 없어 조계종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티베트 승복이나 일본 승복을 지원받아 입고 있다. 승복이나 책, 불교 관련 사진, 염주, 향, 초 등 조계종의 후원이 절실하다.

'세계일화' 소식지에 원하는 것은?

조계종 불자들이 이탈리아에 아주 적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한국불교를 접하자면 800~900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다. 접근성이 원활하도록 한국의 사찰이 몇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 것을 알기에, 한국의 사찰 사진을 전시라도 하면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둘 것 같다. 유럽은 경제적 위기로 힘들지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할 때이다.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보다 마음의 위기에서도 비롯되고 같이 커 가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조계종에서 몇 분 만이라도 유럽에 관심을 두면 좋겠다. 확산하건 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성

파괴에 대한 해결도 가능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모든 선불교 조사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분들이 오래 계셔서 세상을 밝혀주시길... 나 무 관세음보살

끝으로 한국 방문 시 묵었던 사찰을 촬영하여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올 봄에 사진전을 열었는데 3,800여 명이 다녀갔고, 일부는 판매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진전을 이탈리아의 플로렌스나 피사지역에서도 열여, 이탈리아에서 부처님의 법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환희유약하는 기쁨을 주고 싶다고 한국불교나 한국 사찰에 대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글 편집부



[멀리서 날아온 편지] 미국에서의 일요법회

교환교수(현 서울대 치대 교수, 사진 우측)로 메릴랜드 치과대학에서 한 달 동안 지내게 되었다. 6월 17일 한밤에 평생도반 수행과 함께 볼티모어 공항에 도착하였고, 이튿날 화요일 아침 일찍 학교에 둘러 여러 가지 수속을 마쳤다. 23일 볼티모어에서의 첫 일요일을 맞아 메릴랜드 브룩빌에 있는 워싱턴법주사주지 허관스님로 향했다.

지난해 4월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 두 번째 방문이 되는 셈이다. 볼티모어에 사는 아들 내외와 함께 한적한 시골 길을 40여 분 달리니 허리 높이 정도의 4각 벽돌 기둥 두 개가 일주문 대신 세워져 있고 오른쪽 기둥에 워싱턴 법주사라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5,000평에 달하는 절의 넓은 잔디밭이 단정히 깎은 머리를 조아리고 반겨주는 듯하다. 듽성듬성한 이웃집들과 담장 없이 잔디밭을 공유하니 2층 주택인 절 건물이 멀리 섬처럼 떠 있



다. 절 잔디밭 사이로 난 아스팔트 찾길을 따라가 절 앞에 당도하니 '법주사'라는 한자 현판이 현관문 위에 붙어 있어 절 건물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문을 여니 주지스님께서 반가이 맞아 주신다. 마침 이날이 아버지 기일이어서 주지스님께는 미리 전화로 제사 준비를 부탁해 놓은 터였고, 11시 일요정기법회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하였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주지스님과 환담을 하는 동안 신도분들이 속속 도착하여,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시에 사시 예불을 올리며 법회가 시작되었다. 신도분들이 모두 함께 천수경, 칠정례, 이산혜연선사 발

원문 등을 독송하였고, 법요집에 따라 신도분들이 함께 읽는 내용이 많으니 하나로 동참하는 느낌이 더욱 커지는 법회 구성이다.

사시 예불의식이 끝나고 한 거사님의 수계와 법명 수여가 있는 후에, 허관 주지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정토삼부경인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대의를 알기 쉽고도 간결하게 설해주셨다. 특히 법장비구 48대원 중 제18원인 십념왕 생원을 자세히 설해주셨고, 유심정도에 대한 말씀도 하셨다.

정면에는 항마촉지인의 부처님과 관음 세지 협시보살님을 모셨고, 향우의 벽에는 신중탱, 향좌의 벽 효행단에는 아미타불 관음 세지 삼존의 탱화 앞에 지장보살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다.

영단에 효행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이국땅에 온 교민들의 조상을 그리는 마음을 잘 풀어내 주려는 주지스님의 배려이시다. 덕택에 법회가 끝나자 이어서 아버지 제사를 올렸다. 미국에서 올리는 다른 형제들이 참여 못하였으나, 아들 내

외가 나물 등을 손수 만들어 참여하게 되어 의의 깊은 제사가 되었다.

점심 공양이 끝나고 지하 강의실에서 냉난방 기술전수학교 학생들이 모여 강의 및 실습을 하였다. 이는 한인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을 주지는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작년 8월 1기 교육을 시작으로 2기까지 60여 명의 수강생들 거의 전원이 냉난방 종합면허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었다. 올 8월 25일부터는 3기가 시작되며, 수강료는 무료이고 약간의 교재비만 필요하다고 하니 많은 분이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타종교인도 수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은 것에서 주지스님의 무량한 원력을 엿볼 수 있다.

공양주 보살이나 처사 없이 스님 혼자 제초, 세설 등 절 운영에 혼신을 기울이고, 신도분들의 평안한 쉼터 겸 신행을 증장시키는 도량을 일구어 가는 스님께서 이곳이 곧 서방정토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글 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 경주 배광식

지우개 조각으로 불교 포교



오지, 일본 - 코준 아사다(Kojun Asada)는 오른쪽 손에 커터 칼, 왼손에는 사각형 지우개 위에 종이 패턴을 올려놓고 조각을 시작한다. 칼의 작은 움직임으로 5분 만에 미소 띤 부처님 모습의 지우개 스탬프가 완성된다.

코준 아사다는 니가타縣 오지시 코쿠라 사원의 스님으로 지우개를 조각하여 스탬프를 만들고 있다. 아사다는 전국을 돌며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지우개 스탬프 조각 강의와 함께 법회를 열어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7년 전 사찰 경내 이벤트 행사 때 필요한 장식에 지우개 스탬프를 찍게 된 것을 계기로 시작했다. 초기에는 큰 지우개를 사용하였고, 지우개 조각가들의 책을 탐독하며 기술을 습득했다. 지역 이벤트 행사에서도 지우개 스탬프 조각을 만들어주고, 만드는 방법을 가르친다.

2012년 1월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미야자키縣 와타리 지역에 구호물자를 전달하면서 지우개 스탬프를 생존자들에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강의를 통해 생존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자 생존자들은 서서히 대재

앙의 아픔을 말했다.

"우리들의 대화는 적었지만, 가슴 깊이 간직했던 차마 말하기 어려웠던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말할 수 있었다."고 아사다는 회상했다. 그는 지우개 조각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여름 지우개 조각가 츠쿠시를 만나 '작품과 설법이 함께하는 법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불교 경구인 'Shogyo Mujos(諸行無常)'이라는 2인조 그룹을 만들었다.

12월 도쿄 아사쿠사와 카미야초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다음 해 3월 교토, 오사카에서 강의했다. 20~30대 여성들이 대거 참여하며 만석을 이루었고, 참가자들은 츠쿠시가 디자인한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했다. 츠쿠시의 조각 강의를 끝내면 아사다는 조용하고 간결하게 "같은 샘플을 사용하더라도 사람마다 아주 조금씩 다른 작업 결과를 얻는다. 더 우수하거나 열등한 작품은 없다. 모든 사람의 작품은 모두 같다"라며 부처님의 말씀을 설법한다.

"지우개 조각을 하는 동안 경전을 사경하는 것 같은 고요함을 체험했다"고 한 참가자는 소감을 밝혔다.

아사다는 지우개 조각이라는 새로운 포교 방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스님들은 더 많은 사람이 사찰에 오기를 바라고 있다. 스님과 신자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지우개 조각이 한몫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RYOSUKE YAMAMOTO, Asahi Shimbun

[2013. 6. 19]



보로부두르, 융성했던 인도네시아 불교의 기억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심장부 자바의 안개 낀 정글 중앙 케두(Kedu) 계곡에 8~9세기 건축으로 추정되는 약 1만 2,000㎡ 면적에 높이 약 31.5m의 피라미드 계단 형태의 복합 불교 사원 보로부두르가 있다. 이곳은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번창했던 사일렌드라(Syailendra) 불교왕조에 의해 건립되었다. 사찰의 역사는 2010년 분화한 메라피(Merapi) 활화산과 깊은 관계가 있다.



되었다.

사찰은 19세기 싱가포르 설립자 토마스 스탬포드 라플즈(Thomas Stamford Raffles)가 파견한 네덜란드 기술자에 의해 발견, 20세기에는 유네스코 지원으로 복원되어, 고고학자와 관광객의 필수 관광지가 되었다.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은 보로부두르가 가지고 있는 유적지의 가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부상할 것이며, 앞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양날의 칼같이 고대 유적지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신심 고취를 위한 성지 순례의 이미지가 쇠퇴하고 있다고 바츨러는 말한다. 지난달 보로부두르에서 거행된 부처님오신날 축하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스님들에 대한 不敬이 우려했던 바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한다.

"아직 방문객 증가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 보로부두르 같은 유적지가 지난 과거와 현대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적지 보존의 가치를 방문객들이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바츨러는 말했다.

Jonathan DeHart, The Diplomat [2013. 6. 6]

"보로부두르는 캄보디아의 앙코르(Angkor), 에디오디아의 탈리베라(Lalibela), 이스탄불의 아야 소피아(Hagia Sophia)와 같이 세계 종교의 최고 보물이다. 족자카르타(Yogyakarta)나 발리 여행자들에게도 자바의 보로부두르를 중요한 여행지로 추천한다. 세계 각 지역의 불교 성지와 같이 기도와 순례의 장소"라고 불교학자 스테판 바츨러(Stephen Bachelor)는 저서에 기술했다.

보로부두르의 각 계단은 불교의 우주관을 반영하여, 피라미드의 하단은 kamadhatu(욕계), 중단의 5층 方形은 rupadhatu(색계), 부처님이 모셔진 파고다 상단은 모든 형태와 욕망이 소멸한 arupadhatu(무색계)로 표현하고 있어, 예불과 명상으로 각 계단을 순회하며 수행 정진하였다고 한다.

UNESCO는 테라스 형태의 사원 건물 구조를 고대 전통의 종교의식에 바탕을 두고 '해탈(Nirvana)'을 향해 나가는 불교적 세계관을 구현하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바섬으로 이슬람교(자바섬 전체 인구 96%는 이슬람교도)가 유입되고 사일렌드라 왕조가 쇠퇴하면서 보로부두르의 넓은 유적지가 방치



인도서 5차 드룩파교도 대회 개최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인도 라다크 헤미스(Hemis) 사원에서 제5차 드룩파 불교도 대회가 개최된다. 라다크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드룩파 총회는 이번이 라다크가 주최자로서 마지막 행사가 될 것이다.

ADC(Annual Drukpa Council)은 매년 드룩파 린포체들과 법맥을 따르는 이들이 모여 의견과 영적 가르침을 교환한다. 정신적 지도자 갈왕 드룩파(Gyalwang Drukpa)는 드룩파의 법맥 내 사부대중의 기본을 정립하고, 정신적 영감을 제공하며, 경험을 대중들과 공유한다.

연 1회 개최되는 불교도 대회는 티베트, 부탄, 인도, 네팔에서 드룩파 法을 이룬 린포체들로부터 가르침과 法을 전승받는 기회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 의례 진행 및 수행 설법과 더불어 현 생활

의 어려움을 정신적 수행을 방편으로 하여 해결 방안을 공개 토론하고 견해를 교환한다. ADC 포럼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배양하고 상호 조화 속에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자비로운 삶'을 복돋기 위한 실질적 방편으로 慈悲憐愍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을 중요 논제로 하고 있다.

드룩파는 800년 동안 무수한 중생에게 佛法의 길과 궁극적인 깨달음을 전달한 유구한 정신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드룩파 법맥안의 요기(Yogini) 전통과 같은 몇몇 중요 가르침은 거의 유실되어, 드룩파의 많은 신도와 스님은 전통과 역사를 잘 모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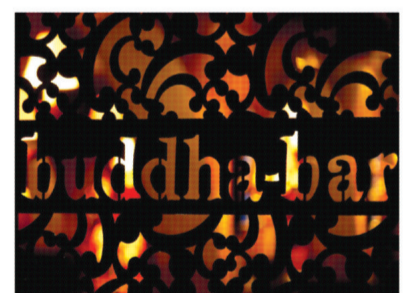
드룩파 불교대회 참가 희망자는 contact@drukpa-hk.org 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상세 내용을 추후 통보한다. The Buddhist Channel [2013. 6. 19]

말레이시아, 클럽 이름 '부다 바' 사용에 항의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 최근 개업한 '부다 바'는 상호 논란으로 말레이시아 청년 불교협회(YBAM_Young Buddhist Association of Malaysia)가 시청에 폐업 진정서를 낸 이후 상호를 변경했다.

MCA(Malaysian Chinese Association)사무국장 헝(Heng)은 알코올음료를 판매하는 클럽 이름으로 '부다 바' 사용은 부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한다고 논평하며 클럽의 폐업을 주장했다.

클럽 주인은 6월 17일 상호를 "공작새 가든"으로 변경하고, 상호 논란에 대하여 사과를 했다. "시청의 시정 권고에 따라 '공작새 가든'으로 상호 변경을 했고, 지역 공동체 내에서 평화와 화합을 다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 처음 상호를 사용하면서 다른 의도는 없었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기리며 매주 수요일 매출의 10%를 자선단체를 통하여 장애 어린이와 고아원에 기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들과 주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근로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클럽 주인은 말했다.



6월 18일 헝 사무국장은 말레이시아의 불교 신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Buddha'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다 바'의 상호 사용은 부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더불어 불교 자체를 경시하는 행위이다. '바(Bar)'의 상호 옆에 'Buddha'를 사용하고, 불상 옆에 알코올을 진열하여 대상을 동일하게 취급했다. 알코올의 섭취는 五戒을 파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유구한 불교 5천 년의 문화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헝은 성명에서 밝혔다. 또한, 코타키나발루 시청이 클럽의 운영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Amy Dangin, Borneo Post [2013. 6. 20]

부탄 불교벽화, 500년 만에 보존처리 중

불당, 부탄 - 히말라야의 불교 왕국 부탄의 사원 벽화 보존처리 현장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5월 21일 옛 부탄왕국의 수도였던 불탕(Bumthang)의 불교 사원 탐쌍라캉(Tamshing Lhakhang)에서 영국 코틀드 미술연구소(Courtauld Institute of Art)의 사원벽화 보존처리 작업 현장이 확인됐다.

라마불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있는 불교 왕국 부탄의 문화유산보호국은 영국의 세계적인 미술사 연구소인 코틀드 미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부탄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0여 개 불교 사원 벽화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조사 결과 16~17세기에 제작된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사원 벽화들이 부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당수 벽화가 별도의 보존처리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훼손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이번에 확인된 보존처리작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부탄의 불교벽화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원 벽화의 보존처리 작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외국인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사원 내부 공개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은둔의 왕국’이라는 별명을 가진 부탄 정부가 코틀드 미술연구소의 작업 기간을 1년에 한 달로 제한하고 최소한의 상주 인력을 허용하고 있어 예정된 기한 내에 보존 처리 작업이 완성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번 보존처리작업에도 단 8명의 연구원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벽화 보존처리작업에 참여한 코틀드 미술연구소의 엠베 케임비 연구원은 “탐쌍라캉은 1501년 건설된 사원으로 부탄에서도 가장 오래된 벽화 가운데 하나”라며 “5월 초 부탄에 입국, 약 2주째 벽화 보존처리작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허가된 체류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여 우선 시급한 기초 작업만 마무리한 후 내년에 다시 입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원인 아마릴리는 “부탄 사원의 벽화는 보존을 위한 적절한 조치만 취해진다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며 “벽화들이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벽화 보존 작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법보신문 남수연 기자 [2013. 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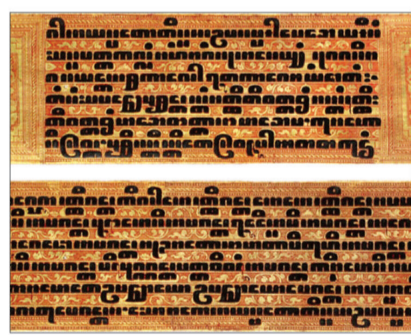


스리랑카, 인도 행정시험에 팔리어 과목 제외

콜롬보, 스리랑카 - 인도가 불교 유물 보호를 위한 국제간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불교 성지 관광객의 증강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 정부가 최근 불교 포교에 크게 활용되고 있는 고대 언어인 팔리어를 2013년 인도 행정 공무원(IAS, Indian Administrative Services) 선발시험 과목에서 제외해 전 세계 불교 신자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팔리어가 포함된 공무원 시험은 많은 응시자가 팔리어로 기록된 불교 연구에 참여할 수 있어 선호한다. 그리고 팔리어 보존을 위한 주요한 정책으로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서 불교 연구의 감소를 방지하는 주요한 방안이기도 했다.

팔리어는 불교 지식의 보고인 부처님의 가르침 經·律·論(Tipitak)을 광범위하게 담아내고, 불교 경전을 전 세계로 전파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상좌불교 국가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 방글라데시 및 서구의 상좌불교 수행 공동체에서 팔리어는 불교 연구의 주요한 기본 요소가 되어왔다.



최근 인도는 정부의 주도로 아시아 불교 국가들과 불교의 역사적·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불교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러나 IAS 시험에서 팔리어 과목을 누락시킴으로써 그간의 노력을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다.

대표적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의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불교국가 대표는 불교 유적지 보전과 불교를 전 세계로 포교하는 팔리어에 대한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인도에 지속적인 팔리어 사용을 촉구하여야 한다.

팔리어는 불교의 종교적 언어로서 스리랑카 불교 마가디(Magadhi 부처님의 언어)와 매우 가까운 형태를 띄우고 있다.

Shenali D Waduge, Lankaweb[2013. 6. 6]

소림사, 쿵푸로 국제무대 진출

베이징, 중국 - 쿵푸의 발상지로 알려진 중국의 소림사가 국제적 위상 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하여 미국에서 첫 문화 축제를 준비 중이다. 스옹신(釋永信) 주지스님은 북미에서 처음 개최되는 소림사 문화 축제가 10월 8일~14일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하며, 캘리포니아에서 9년 동안 ‘소림사의 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북미에만 만여 명의 수련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전 세계 소림사와 쿵푸 애호가들의 교류를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 중이다.”라고 말했다. 주지스님과 제자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60여 개국에서 쿵푸를 선보였으며, 주지스님은 1년에 두 달은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오는 9월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 군사 음악 축제에 참여하여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쿵푸 시범도 보일 예정이다.

소림사 쿵푸는 특히 1970년대에 제작된 쿵푸 영화의 성공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고, 제자들의 傳承으로 1,500년의 역사를 유지 할 수 있었다. 쿵푸 무술의 전 세계 홍보를 위하여 1982에 제작된 ‘소림사’ 영화를 중국 영화사와 합작하여 3D 영상으로 리메이크 제작할 예정이다.



“사찰에는 300여 명의 스님이 출가수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에 40여 개 문화 센터를 개원하고 있다. 서구에서 불교의 인기가 높아감에 따라 불교와 그들의 문화가 잘 융화되기를 기원한다. 특히, 불교는 타 종교와도 평화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화합을 이어 갈 것이다. 젊은 승려들이 경전 강설과 함께 수련하면서 해외 활동을 강화하기 바란다. 그리고 쿵푸와 선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의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고 스님은 말했다.

스님은 중국 동부 안후이 성 출신으로 1999년 소림사 주지가 되었다. 최근 쿵푸 무술 쇼, 쿵푸를 상품화한 온라인 판매 등의 지나친 상업성으로 ‘중국의 CEO스님’으로 회자되며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 바쁜 시간에도 참선을 위한 시간을 빼놓지 않고 있다. Xinhua [2013. 6. 19]

미얀마 불교 사원, 이슬람교도 난민 보호

라시오, 미얀마 - 천여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미얀마 북동쪽 라시오 지역의 불교 사원에 대피하고 있다. 이번 폭동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이슬람교도 소유 경작지가 전소되었다.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검게 그을려 전복된 라시오 인근 거주지에서 공포에 질린 1,200명의 이슬람교도는 군용차에 실려 사찰로 왔다. 불교 승려들은 새로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다. 폭도들로부터 겨우 도망친 난민들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적십자에서 제공한 간이 숙소에서 밤을 보냈고,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는 물리적 공격과 살인 위협으로 거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몇몇 폭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날카로운 대나무 봉을 들고 있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으나 더 이상의 폭력사건은 없었다. 군인과 경찰은 중심가에 주둔하면서 완전 전소된 이슬람교인 상가들을 보호하고 있다.

폭동의 발단은 이슬람교도 남자가 여자 불교 신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불교 신자 폭도들이 이슬람교인 소유의 상점, 사원, 고아원 등을 방화했다. 라시오시 사태와 같이 반이슬람교 정서는 서서히 미얀마 전역으로 퍼졌다. 작년 라카인 주 서부에서 시작하여 올해 3월 메익틸라(Meiktila) 도심에 폭동이 휩쓸고 갔다. 2년 전 군사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테인 세인(Thein Sein) 정부는 폭동 진압에 실패하면서 심한 비판을 받았다.

소수의 이슬람교인(미얀마 전체 인구 6천만 명의 4%)은 작년에 발발한 폭동의 주된 피해자였으나,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이슬람교도들이 반대로 기소되었다.

50년의 군사정권 통치 이후 혼란이 지속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미얀마가 인종적, 종교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촉발된 폭력 사태를 테인 세인 정부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ko Armunanto, Digital Journal [2013. 6. 13]

아직도 몇몇 폭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날카로운 대나무 봉을 들고 있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으나 더 이상의 폭력사건

은 없었다. 군인과 경찰은 중심가에 주둔하면서 완전 전소된 이슬람교인 상가들을 보호하고 있다. 폭동의 발단은 이슬람교도 남자가 여자 불교 신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불교 신자 폭도들이 이슬람교인 소유의 상점, 사원, 고아원 등을 방화했다. 라시오시 사태와 같이 반이슬람교 정서는 서서히 미얀마 전역으로 퍼졌다. 작년 라카인 주 서부에서 시작하여 올해 3월 메익틸라(Meiktila) 도심에 폭동이 휩쓸고 갔다. 2년 전 군사 정부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테인 세인(Thein Sein) 정부는 폭동 진압에 실패하면서 심한 비판을 받았다.

소수의 이슬람교인(미얀마 전체 인구 6천만 명의 4%)은 작년에 발발한 폭동의 주된 피해자였으나,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이슬람교도들이 반대로 기소되었다.

50년의 군사정권 통치 이후 혼란이 지속되며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미얀마가 인종적, 종교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촉발된 폭력 사태를 테인 세인 정부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주민 불자 무차대회 - 이주민 당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삼시다!!



6월 30일 한 여름 더위에 아랑곳없이 평택, 동두천, 파주, 인천, 부평 등 서울 경기 인근에서 이주민들이 조계사 경내로 모였다. 바로 '이주민 불자와 함께하는 무차대회'에 초대받은 이주민들이다. 이번 무차대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 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와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도제스님)의 공동주관과 국제전법단, 대광사, 한국YBA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날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총 8개국 350여 명의 이주민을 초청하여, 지치고 힘든 이주민불자들을 위해 위로와 환대의 마당을 펼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에서 "부처님은 못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곧 '나'임을 알게 해주셨다"며 "오늘 무차대회는 이주민불자 여러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손을 잡고 함께 공양하며 '우리가 바로 삶의 주인'이라고 자각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루듯 오늘 이 자리가 이주민불자 여러분과 한국 사부대중이 한 식구로 더불어 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감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공감토크쇼는 각국의 전통 공연으로 참가국의 문화를 엿본 후 그 국가 이주민대표가 나와 한국사회에서의 자신의 삶과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베트남 이주여성 이유리씨는 한국문화를 잘 몰라 겪은 에피소드를 공개해 좌중에 웃음을 줬고, 한국인배우자 사망 경우와 한국인배우자와 혼인관계 파탄 후 미성년자녀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차분한 어조로 밝히면서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공장에서 산재를 당한 방글라데시 카쿤스님은 자신의 아픔보다 방글라데시 종교평화의 염원을 밝혀 주위를 숙연케 했고, 스님의 신분으로 공장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토크쇼 참가자 대다수 들은 불자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스리랑카에서 온 차툰씨는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불자인 우리 스리랑카 친구들은 갈 곳이 없어 교회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 불교계에서 이주민불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혼이민 7년차인 캄보디아인 김수완씨는 "캄보디아에서는 1달에 4번 불교행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한국의 캄보디아인들은 교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 편히 참석하기가 힘들고, 개종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네팔의 나빈스님 역시 "네팔법당이 부족한 관계로 아프고 힘들면 이웃종교에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쉼터에서는 그들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밝히, 참가자 전반적으로 한국 불교계의 도움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이주민법당이 생긴다면 이주민불자들이 편히 쉬고 신행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서로 한층 더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주민불자들은 한국인들의 배려와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몽골인 바이르메씨는 "6년 전 한국에 왔는데 봉은사의 후원으로 동국대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다"며 "공부를 끝마치고 몽골에 한국불교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의 소원을 담은 서원의 등 전달, 방글라데시 종교평화 기금 전달 등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국제전법단 단장 수암스님은 이주민 불자와 함께하는 서원문을 통해 우리 모두의 발원을 밝혔다. "이주민들의 피부색, 언어, 문화 등 안과 밖의 모습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 다름이 인정되어야 이주민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이번 무차대회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존중하여 소박하고 정의로운 삶이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02-720-7095



1 일감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공감토크-베트남 이유리씨 2 방글라데시 카쿤스님의 발언 3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참가자들에게 직접 배식 4 마추현 상임대표 도제스님의 방글라데시 종교평화를 위한 일천만원 기금 전달식 5 참가자들이 직접 적은 서원을 담은 서원의 등을 몽골 바트보양 스님이 도법스님께 전달하며 참가자들의 서원이 조급이나마 이뤄지길 바래본다. 6 국제전법단장 수암스님의 서원문 낭독 7 베트남 모자출 8 네팔 관세음보살춤 9 스리랑카 전통공연으로 포문을 연 무차대회 10 캄보디아 전통공연 11 태국 공연